

대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성인을 육성하는 '지식의 상아탑'이 '취업양성소'로 전락하는 지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은 현재 교내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논란 속에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대학본부와 행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 이에 한성대신문은 본교 학과 통·폐합 논란과 기초학문의 위기에 대해 파헤쳤다.

» 2, 3면에 계속

논란의 보궐선거, 그 결말은?

일부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후보등록을 두고 의견 갈려

보궐선거 이후부터 베그덕

지난 3월 16일·17일 양일간 진행된 제31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부결됐다. 재적인원 7,087명 중 2,938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41.46%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는 39.91%를 기록해 부결된 바 있다. 즉, '투표율 부족'으로 두 번의 선거 결과 제31대 총학생회는 공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었던 최치현 총대의원회 정의장은 낙선의 메아리에 '총학생회 등록 및 재선거'를 공고했다. 하지만 3월 16일·17일 진행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공지 없이 재선거를 공고해 이후 사과문과 함께 보궐선거 결과를 게시했다.

부결된 선거의 후보자 재등록 해

논란은 여기서 시작됐다. 바로 보궐선거에서 투표율 부족으로 부결된 '인정' 선거운동본부 신석호(정치 4) 정후보·김민경(매디 3) 후보가 재등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칙과 선거시행 세칙을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된다.

임채수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3월 20일에 낙선의 메아리에 "2015년도 3월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의 게시물을 통해 '학생회칙 제16장 선거 총칙 부분의 제92조(자격기준) 7항 '최근 1년간의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자(단, 당해 연도 3월당선거자의 경우 당해 연도 11월 출마 가능)'에 의거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재등록을 할 수 없다'며 '인정' 선거운동본부의 재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문대학 학생회(학생회장 김재현, 부학생회장 정다솜), 예술대학 학생회(학생회장 유예빈, 부 학생회장 신혜수), 공과대학 학생회(학생회장 임채수, 부 학생회장 위준범), 학생복지 위원회(위원장 장승훈, 부위원장 박승희)는 뜻을 함께 함을 밝혔다.

3월 보궐선거 진행 당시 총대의원회 최치현 정의장이 중선관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선거 기간 중 '선관위가 후보자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최치현 총대의원장은 당시 "이러한 말이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거 당시 논란의 결과와 중선관위의 행보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인정' 선거운동본부가 재등록할 당시에는 총대의원회 최치현 정의장이 중선관위원장을

을 사퇴한 이후, 졸업준비위원회 임병국 정위원장이 중선관위원장을 맡은 시점이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재등록'을 두고 중선관위와 일부 중앙운영위원회가 재등록을 마친 이후 마찰을 빚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중선관위, 후보자 재등록에 '문제없다'

'인정'선거운동본부 재등록한 이후 지난 3월 20일 김형준(정보통신학과 부학생회장) 중선관위원장을 필두로 새로운 선관위가 재발의 되었다. 재발의를 공고함과 동시에 "제 16장 선거 총칙은 선거시행세칙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작성되어있지만 명칭 상 선거 총칙이 아닌 선거 회칙이고, 세칙은 사전 상 의미로 으름이 되는 규칙을 다시 나누어 상세하게 만든 규칙임으로 회칙은 세칙의 상위법이 아닙니다"라며 일부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 표명에 반박했다. 즉, 세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세칙을 두고 해석의 논란이 있어 중선관위의 과반수 의견로 결정된 사안이기때 후보자 재등록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새로운 중선관위 발족 이후 선관위원들 대거 사임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1일 낙선의 메아리에는 일부 선관위원들이 사임했음을 알리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선관위원들 중 김현완(영어영문학부 학생회장), 장동훈(한국어문학부 상임위원), 백시현(한국어문학부 부학생회장), 김수미(영어영문학부 부학생회장), 여지은(지식정보학부 학생회장), 김슬기(지식정보학부 부학생회장), 변경진(패션디자인전공 상임위원) 선관위원들이 사임한 것이다. 특히, 사임한 선관위원들이 변경진(패션디자인전공)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인문대학 소속이라는 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왜 학생회 내부에서 마찰이 빚어졌는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3월 24일 김형준 중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김민정(멀티미디어공학과) 상임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학교의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어

3월 18일 수요일 제31대 총학생회 후보자 재등록 완료 이후 26일 목요일 까지 일주일 지났음에도 선거는 진행하지 못한 채 '후보자 재등록' 가능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는 분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는 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운위의 손

을 들어왔다. 김민정 중선관위원장은 27일 금요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일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여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선거 지원(물품대여)을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 논란뿐만 아니라 본교는 현재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가 술렁이는 터라 일각에서는 "학교가 총학생회가 들어서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후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되어 중앙기구,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 선거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회칙과 선거 세칙을 두고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북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가지 주장 모두 맞지 않는 하나를 택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확대운영회의 결과 '인정' 선거운동본부의 재등록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하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양측의 의견 대립은 모순되는 지점이 발생하는 회칙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논란이 된 학생회칙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바 있다. 특히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전면개정된 것이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지면안내

기획
본교 학과 통·폐합 논란 **02**

기획
기초학문은 왜 고사 위기에 처했나 **03**

사회
너무 무거운 강의 교재 **04**



사람사

타투이스트
TEO(테오)를 만나다.



학술
연재기획②
남녀는 과연 천리 앞에 평등했다 **07**

문화
예술가는 왜 항상 배고파야 하는가? **08**



발행일정

발행호	발행일
502호	4월 13일 월요일
503호	5월 18일 월요일
504호	6월 1일 월요일

동정란

김형수(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김 교수는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김홍배(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전공) 교수
김 교수는 2015년 3월부터 2년 간 사단법인 한국서비스디자인협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3월 12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제15대 이사장 이종훈 박사 취임식 개최해



지난 3월 2일 학교법인 한성학원 제15대 이사장 이종훈 박사 취임식을 미래관 DLC에서 개최했다. 취임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외빈으로는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이대순 전 체신부장관, 이면영 흥익학원 이사장, 이현정 전 삼명대 총장, 이성근 전 한성대 총장이 참석했다. 내빈으로는 한성학원 이희순 설립자, 이경일 한성학원 이사, 장원택 한성학원 감사, 강신일 한성대 총장, 이장한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이귀영 한성여자중학교장이 참석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저는 한성대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이사회의 장이며 관리책임자입니다"라며 "한성학원의 주인은 여러분 모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성의 70년 역사를 정의하고 새로운 역사를 저와 함께 써 나갑시다."라고 전했다.

오혜진 기자 dhgpwls0424@hansung.ac.kr

2015년 봄학기 한국어과정 입학식



3월 2일 창외관 소강당에서 2015년 봄학기 한국어과정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입학식에는 2015년 3월 2일(수) 14:00 ~ 15:00 (언어교육원) 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새로 이전한 교실을 돌리라며 마무리 하였다.

제21기 한성엠버서더 결연식



▲ 3월 13일 미래관 DLC에서 제 21기 한성엠버서더 결연식이 진행되었다. 한성엠버서더는 한국 어과정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 도서관 열람실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술정보관 연속간행물실 오픈



3월 12일(목) 오후 4시에서 본교 학술정보관이 기존 자유열람실을 리모델링하여

연속간행물실을 개방하였다. 이번에 오픈한 연속간행물실은 북카페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잡지, 시사·교양지와 국외 학술지 255종을 자유롭게 안락한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열람·출력 PC가 구비되어 있어 광범위 학술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

강순애 학술정보관 관장(지식정보학부 교수)은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학생들이 조용한 공간 이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이에 새로운 모습의 열람실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신일 총장과 교직원, 교수,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본교 학과 통·폐합 논란

'제대하니 내가 다니던 학과가 없어졌다', '복학했더니 나는 다른 학과 학생이 되었다' 등의 괴담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본교는 '학과 통·폐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 낙산의 메아리와 학생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는 학과 통·폐합, '우리 학과는 상관없다면?', '학과 통·폐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래',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난리던데?'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본교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 한성대 신문이 취재했다.

(편집자주)

소문만 무성한 학과 통·폐합 그 진실은?

대학가는 교육부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몸살을 앓아왔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인구를 대비하여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인 구조개혁 평가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에는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을 정원감축과 연계해,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앞에서 대학들은 생존경쟁을 시작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과 구조조정'이다.

본교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서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입학정원의 8.6%인 140명을 감축하게 되었다. 사실상 당시 몇몇 대학들이 본교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감축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면한 것이다.

그 결과 2015학년도 신입생 정원 중 5%를 감축했고, 2016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3.6%를 감축해야한다. 이러한 정원 감축과 앞으로 다가올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을 고려해, 본교는 대학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한성대신문은 소문만 무성한 학과 통폐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혜경(기획협력처) 처장과의 인터뷰를 진

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혜경 처장은 "아직 학과 광역화에 대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그렇기에 4월 초 학과 광역화 확정안이 나오면 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그때 취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월 23일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교 측의 대답을 전한 김동환(학생지원처) 처장을 만났다. 먼저 본교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동환 처장은 "대학이 학과를 운영할 때 최소 25~26명의 학생이 있어야 한다. 본교는 이번 정원감축으로 한 학과 당 통계적으로 3~15명이 줄은 셈"이라며 "그 결과 학과 최소 인원에 미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사실상 폐과하게 되는 학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과와 학생들을 살릴 길은 학과 통합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학과 통·폐합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동환 처장은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와 경우 두 학과의 교육과정의 20~30% 정도 비슷한 과목으로 이루어져있다"며 "이에 이 두과를 통합하면 학과 운영비를 줄여 효율적으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로 학과 통합을 본교 전체에 적용한다면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학과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현재 학과 통폐합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동환 처장은 이를 두고 "이는 학교 본부에서 개별 학과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학과가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과 자체적으로 살 길을 모색한 것"이라며 "학과 자체적으로 학과별 통합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광역화'를 진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학과 통·폐합과 '광역화', 그 개념은 무엇인가?

김동환 처장은 본교의 논란의 화두인 '학과 통·폐합'을 두고 "학과를 통합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학과의 성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교는 학과 통·폐합을 두고 '광역화'라고 지칭했다. 또한 이러한 '광역화'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학과별 광역화 신청을 접수 받고 있는 중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광역화는 무엇이며, 통·폐합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우선 이 두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학과제와 학부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학과제는 한 개의 학문 분야를 개별적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학부제는 두 개 이상의 유역사학과나 근접 학문의 결합이 이루어

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과와 학부를 더 큰 규모로 확대하거나 결합하는 하는 단위 혹은 제도를 '광역화'라 한다. 즉, 학부 이상의 더 큰 개념으로 학생 모집단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학과 통합은 2~3개의 학과를 결합해 소규모 그룹을 만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역화는 세분화 되어있는 학과들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의 모집단위로 결합하는 것을 광역화라 일컫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용어의 개념을 보았을 때, 본교는 '모집단위 광역화'라는 용어보다, '학과 통합'이 더 어울리지 않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학과 통·폐합 혹은 '광역화'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학과는?

본교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예비신청 결과 사회과학대학에는 경제·부동산학부, 예술대학에는 패션학부(아트 앤 게임 그래픽학과/디자인학과/전자정보기계융합공학과/기계학과 총 8개의 신설·통합 학과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동환 처장은 "이와 더불어 추후 한국어문

학과와 지식정보학부가 한 개의 신설·통합학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결과 총 9개의 신설·통합학과가 지원 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짜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실상 본교에 학과 통·폐합의 소문이 무성해진 시점은 3월 초라도 봐도 무방하다. 지난 3월 23일 월요일 진행된 학생대표와 김동환(학생지원처) 처장과의 간담회 결과가 24일 화요일 본교 학생 자유게시판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되기 이전까지 본교의 학과 통·폐합은 약성 루머에 불과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간담회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비단 루머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두 간담회가 진행된 이후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미루어 보았을 때, 본교 통·폐합 논란이 꽤 긴 시간동안 '루머'로 존재했다는 점과 이에 대해 학교 본부 측도 학생대표 측도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 이후에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아 '날치기 구조조정', '학교 본부의 밀실 정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학 구조조정을 맞이한 타 대학들은?

중앙대학교

지난 2월 26일 중앙대학교 본부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학과제를 폐지하고 인문대, 자연대 등 단과대학별로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단과대학 소속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1년 동안 공통교양을 비롯한 여러 교양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단과대학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전공기초과목을 듣고 2학년 2학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비인기 전공의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내구성원의 반발이 빚발쳤다. 지난 3월 2일 중앙

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반학문적·반교육적 밀실 개편안을 철회하고 책임지는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계획안에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은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지난 3월 18일에는 학생공동대책위원회(학생공동대위)가 공식 발족하며 '대학본부의 소 통 없는 구조조정에 반대합니다'라는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처럼 학내 구성원의 적극적인 반대에 중앙대 본부는 학사 구조 개편 계획안을 대폭 수정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7대 단위의 학생회에서 규탄서를 발표하는 등 학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지난 3월 22일 건국대학교는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기존의 학부제를 폐지하고 전공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과제를 강화하기로 밝혔다. 또한 4개의 학과를 통·폐합해 기존 79개 학과를 63개 학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일부 단과대학에서 학과 통·폐합 및 입학정원을 시행하고,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학사구조 조정안이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는 건국대 서울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수업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제1학생회관 앞에서 학사구조조정 학과 통·폐합 대상인 영상학과, 영화학과 공예과, 텍스타일디자인과, 소비자정보학과와 경영정보학과 학생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여 성명문을 낭독한 뒤 교내 행진을 진행했다. 건국대 정관회(공과대·산업공학 3) 총학생회장은 "지금도 집회를 집행 중이며 학생총회를 개최해 우리의 뜻을 학교에 관철 시킬 생각이다"며 "첫번째로 학과 통·폐합에 반대할 것이며 두 번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칙 개정에 있어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화 시킬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청주대학교

2013년 5월 21일, 청주대학교는 자체적인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회화학과와 폐과를 발표했다. 다음날 회화학과 학생들은 전 학년이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 13학년도 청주대 회화학과에 입학한 오가에 학생은 "단지 취업률로 학과를 평가해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하고 통보한 것이 이해가지 않았고, 거짓말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회화학과 재학생 80여명은 청주 시내에서도 집회를 열어 "예술을 취업률이라는 일률적인 지표로 평가해 학과 폐지를 진행한 학교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난했다. 학생들의 2주간 시위에 폐과를 결정할 청주대는 회화학과를 비주얼아트학과로 전면 개편했다. 이미 결정

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인 학교와의 타협은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다. 오가에 학생은 "결국 회화학과는 없어지고, 순수미술보다 상업 디자인 분야를 공부하는 비주얼 아트학과가 되었다. 복학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주얼 아트학과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은 청주대 회화학과 재학생들이 총장에게 드린 글의 일부이다. "존경하는 총장님! 저희 회화학과를 살려주세요. 저희 선배들은 훌륭한 화가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가에게는 권력도 돈도 주어져서 않는 배고픈 길이지만 시대를 앞선 위대한 길이기 에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간담회 당시 김동환 처장의 발언으로 논란일어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된 간담회 결과 게시물을 학생 대표측의 "학생들과 이러한 과정을 왜 논의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김동환 처장이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구성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묻고 의견을 구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교육을 제공 하는 측에서 만드는 것이지 교육 수요자가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

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대답을 비논 패러디 이미지가 퍼질 정도이다.

이에 김동환 처장은 "학생들과 논의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해 달라는 말을 했던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간담회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

하는 것은 교육의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나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며 수 백 년간 유지된 대학의 역할이기도 하다. 만약 교육 커리큘럼을 수요자가 정한다면 그것은 대학 교육이 아닌 '사교육'인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과 지성 수업에서 지상현 교수의 발언 역시 논란 돼

지난 27일 낙산의 메아리에 '3월 26일 대학과 지성 강의진행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의를 청강하였던 학우들이 전해준 바로는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는 다행히도 교수님들이 통폐합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말씀하셨고, 두 명 정도의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지상현 교수님의 답변은 "추계예대는 방법이 무식하게 진행되었던 것이고, 우리 학교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과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실수하는 거다. 네가 그렇게 회화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친구들은 취업하고 싶어 하고 회화과에 작가하려는 애들이 몇 명 없고 회화과 자체의 취업률이 저조하여 관련된 회의를 할 때마다 회화과 교수님들이 조마조마 하시는 부분을 안쓰럽게 여겼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예대 신입생들 앞에서 "내가 회화과 학생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이 말은 안 했는데"라는 표현 또한 사용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회화과 허수경 정학생회장, 이한울 부학생회장이 낙산의 메아리에 작성한 게시물 (3월 26일 대학과 지성 강의진행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내용의 일부이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3,100건을 넘었고, 댓글이 80개 이상 달렸다. 댓글에는 '교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았다. 실망스럽다',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원한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본교의 학과 통·폐합은 어떻게 전개되나?

본교는 현재 자체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신설·통합 학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마감된 이후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학생 간담회, 이사회에 순으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동환 처장은 "4월 초 신청이 마무리 된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에게 광역화 되는 학과의 확정안에 대해 설명한 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을 확정된 후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학생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다.

1차 간담회 이후 학생대표 측의 대응은?

본교의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 강행 속에서 지난 3월 27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중앙기구,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로 구성)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하지만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석이다. 최지현 총대의장은 "학과 통·폐합 관련 1차 간담회 이후 2차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다"며 "2차 간담회는 조혜경(기획협력처) 처장님과 강신일 총장님께 요청한 상태지만, 간담회를 보류한 상태"라고 답했다.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는 본교와 같은 대학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두고 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가운데, 본교는 '폭풍의 눈' 속에 있는 듯 조용하다. 또한 학과 통·폐합'을 두고 '광역화'라 지칭하면서도 그 '광역화'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학생들 입에서 '우리학교가 또'라는 말이 당연하게 나오는 지금, 성직 세척이 변경되었을 때, 8.6%의 정원을 감축했을 때 처럼 소문이 '역시나'가 될지 모르는 잔인한 '4월'이 다가온다.

기초학문은 왜 고사 위기에 처했나

설 자리를 잃은 기초학문

‘인문’ 신조어 탄생
 “인문계 출신 90%가 높다”는 뜻의 이른바 ‘인구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기업에서 이공계 출신의 졸업생들을 선호하고 인문계 출신의 졸업생들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인문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46%, 공학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67%이다.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공학계열보다 20% 이상 낮은 셈이다. 이렇듯 실제 인문계 졸업자들이 겪는 취업률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다.

‘5.31 교육개혁안’, 교육시장화의 시발점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이 고사 위기를 맞게 된 본질적 원인은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있다.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즉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로 국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교체한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이다. 그러나 대학은 1995년부터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서부터 신자유주의로 구

조변화를 시작한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공교육 시장화로서 대학교와 교원을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로, 학생과 기업을 소비자로 보는 방식이다. 즉, 교육을 상품화하고 시장 원리를 도입해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안’은 대학설립 자유화와 대학 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대학설립 자유화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한 규제완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 이후 대학 수는 급격하게 증가해 1970년에는 71개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89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1971년 이후 대입정원이 약 30만 명이나 증가했다. 폭증하는 대학 수와 대입정원으로 인해 대학 양적 팽창이 일어나 부실 대학을 양산하게 되었다.

또한 ‘5.31 교육개혁안’에 대학 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시장주의 발상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대학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본격적인 정원감축 추진해
 이렇듯 시장주의 정책으로 인해 한차례 위기를 맞은 기초학문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졸 인력 양산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대졸 인력으로 인해 과잉공급 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정원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원감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학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여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해 정원감축을 꾀했다. 박근혜 정부도 취업률을 반영한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대학별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 규모를 할당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중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조정을 하는 대학에 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취업 양산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 취업률이 낮은 예체능계와 인문계를 비롯한 기초학문의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기초학문이 소외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학교육연구회 임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학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해야 인문학 육성정책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과를 폐지시키는 상황에서 대중화 인문학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인문학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반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며 기초학문의 고사 위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회피했다.

변화를 반복하는 모집단위

1980년 군사정권 당시 7.30 교육개혁으로 대학입학 본고사가 폐지되고 예비고사와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생을 선발했다. 이 당시 인문사회계열, 공과대학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등으로 나누어 계열별 모집을 하였다. 1년 동안 대학생활을 적응한 뒤 2학년 때 성적에 따라 학과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학령고사로 입학 유형이 바뀌었으며 점차 학부제와 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학과 통·폐합 정책 추진해
 1988년부터 교육부는 ‘대학정원 조정 지침’을 마련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를 통·폐합하도록 대학들에게 적극 권장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와 각종 행정 재정 지원 기준마저 학과 위주로 되어 있어 큰 진전을 얻지 못했다. 이후 1994년에 세분화된 대학학과의 통·폐합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학과 통합을 위한 정책전환 추진 계획’ 및 ‘학과 통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과과정을 보편적인 학과 중심으로 통·폐합하거나 실질적인 학부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도록 학과 통·폐합을 추진한 원인은 지나친 학과세분화에 있다. 대학이 양적성장 재정책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학과 신설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대학진학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는 고급인력 양성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대학 또한 세분화된 학과별 교과과정 편성에 따른 시설 설비의 중복 투자로 인해 재정부담이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이를 해결하고자 학부제 운영 및 학과 통·폐합을 추진한 것이다.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도입된 학부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세분화된 학과들이 하나의 학과로 완성되었다. 교육부는 1995년에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학부제 실시방침을 전국대학교에 공문

을 보내 이를 확대시켰다. 또한 재정 예산과 연계하여 학부제 대학입학정책을 추진하였다. 도입된 학부제는 학제 간 벽을 허물고 지식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시에 학문 선택의 기회가 넓어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후, 1997년에는 51개 대학에 추가로 도입되어 588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27개의 학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학생모집단위를 2개 이상 학과나 학부별로 모집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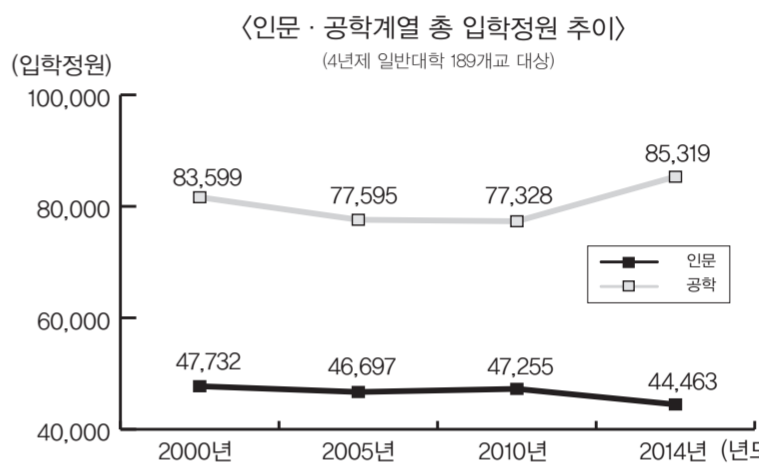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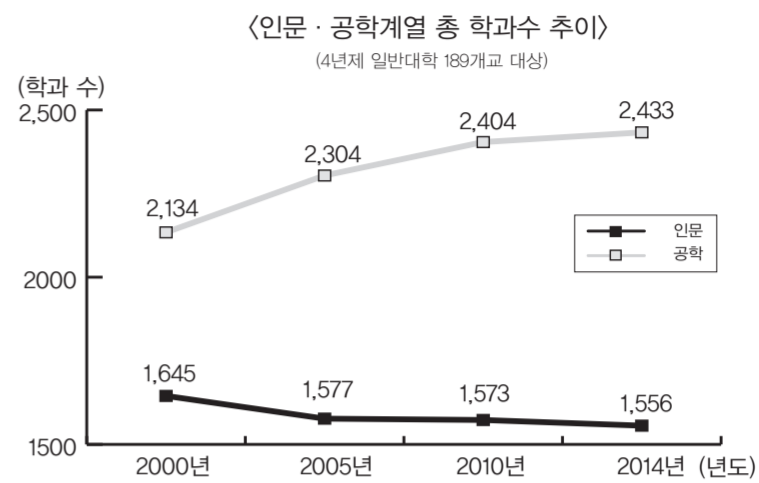
학부제 모집단위 광역화시책
 1998년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해 복수전공이 제도화됨으로써 모집 단위를 광역화했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학생 모집단위를 학과 또는 학부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는 제도 또는 정책 단위이다. 이로 인해 단과대학의 전공 혹은 개인이 입학 시 선택한 전공을 모두 마친 후 자유롭게 새로운 제2의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육과정

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광역화는 교육부가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모든 대학에 이를 일률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전공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인기 있는 학과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출렁현상이 일어나 비인기학과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대학입학제도도 모집단위를 비롯하여 입학시험요강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중앙대는 학과제를 전면 폐지해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건국대는 학부제를 모두 학과제로 전환해 이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학사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집단위 변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발전은 꾀한 결과이기보다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에 쫓기듯 학사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듯 정책에 휘둘러 변화를 반복하는 대학이 과연 대학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려된다.

‘인문’ 계열은 줄고 ‘공학’ 계열은 늘어나



※국내 대학의 학과 변천·분화에 관한 연구 /경인교대 김왕준(교육학과) 교수

김왕준(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연구한 ‘국내 대학의 학과 변천과 분화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과 관련한 교육부의 정책은 대학의 입학정원과 학과 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책을 도입한 2011년부터 인문계, 자연계와 같은 기초학문의 정원조정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대학 자유 설립화로 인해 전체 대학입학정원이 약 31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열별 입학정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2000년 4만 7,732명에서 2014년 4만 4,463명으로 6.4%가 감소했다. 자연계열도 2000년 4만 7,060명에서 2014년 4만 3,303명으로 7.98%가 감소했다. 반면에 공학계열은 8만 3,599명에서 8만 5,319명으로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률을 반영해 대학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 인문계열만 입학정원이 감소되었다. 2010년 4만 7,255명이었던 인문계열 정원은 2014년 4만 4,463명으로 4년 만에 5.9%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공학계열은 2010년에 7만 7,328명에서 2014년에 8만 5,319명으로 10.3%나 성장했다. 인문계열 학과 수 또한 2000년 1,645개 과에서 2014년 1,556개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공학계열은 2000년 2,134개과에서 2014년 2,433개과로 299개과 증가했다. 심지어 인문계열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학과도 없었다.

학과 통·폐합은 과연 옳은 처사인가?

제도적 접근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다. 우 의원은 학교가 학과 통·폐합 시 반드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에 현재 논란중인 ‘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의원을 만났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은 정원감축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채 높은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학들에 대한 구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이 인문, 예술 등 취업률이 낮은 순수·기초학문들과 비인기학과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평가지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신입생 충원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기초학문의 경우 앞에 언급한 항목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학문에 취업률이라는

잣대를 대는 대신 학교가 다른 학문의 기원이 되는 기초학문을 얼마나 장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과 통·폐합’의 가장 문제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 되는 것은 대학 평가 지표 자체에 대한 것이다.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순수 학문을 비롯한 비인기 학과가 우선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기초학문과 연구 증진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내 구성원과의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2013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내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거치거나 아예 학교에서 통보해 버리는 식의 소통 때문이다. 대학 스스로 자신을 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대학 입학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우원식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은 무엇인가?

기초학문 증진을 비롯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느냐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도록 해야 한다.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2013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서울대 3,457억, 2위 카이스트대 3,115억, 3위 연세대 1,755억, 4위 고려대 1,551억, 5위 부산대

1,476억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대형 사립대학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는 현재 재벌 사립대학 위주의 대학 정책을 고착화할 것이다.

1970년대와 2014년도 대학별 입학정원 변동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1970년에 이어 2014년 상위 20위 대학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서울 소재 대형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들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입학정원과 구조조정을 한 대학은 20곳 중 4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 대신 지역거점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국·공립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

대학이 기초학문을 통·폐합 하는 ‘구조조정’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30년대 삼류 대학에 불과했던 미국 시카고대학이 전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카고 플랜’ 때문이다. 당시 새로 부임한 총장은 ‘순수학문이 부재한 대학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위대한 고전 100권을 정해 학생들로 하여금 거의 달달 외울 수준까지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그 결과 시카고 대학은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후보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학술적 접근

최근 많은 대학에서 인문·예술교육의 폐지 및 학과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예술대학·학회총연합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근 순천향대 연구무용학과 교수에게 예술학문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학과 통·폐합’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 보았다.

현재 대학에서 가장 큰 사안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생 비율이 동일 연령대의 4% 정도에 불과하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80%가 대학에 간다. 대학생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전 국민이 대학을 가는 것이다. 대학은 일종의 환경이 되었다. 환경을 무리하게 변화시킬 때 생기는 부작용을 생각 못하고 갑자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엉터리 정책에 모든 걸 다 바꿨다고 한다. 그동안 단지 몇 십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육 정책 당국자의 잘못에 대학과 학생이 고스란히 피해 보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취업률이다. 대학이 갑자기 취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치자. 그럼 전공 연계성을 봐야하는데 특성에 따라 졸업

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분야도 있고 예술처럼 최소 5년은 봐야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그걸 고려한 조차로 교육은 잘 시켰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지금 취업률은 전공 상관없이 직장 건강보험 여부로 가리고 있다. 이는 교육을 왜곡시키고 교육현장을 발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엉터리 기준이다.

최근 비인기 학과로 낙인이 찍히거나 취업률이 낮은 인문예술학과들이 통·폐합되고 있어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느 전공이 얼마나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저 막연히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확한 국가 직업 분포와 인력 양성에 대한 설계부터 되어야 한다. 과거 그런 계획 없이 대학 인구나 학과를 무작정 늘렸다가 지금은 또 수습하겠다고 멋대로 줄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구 없었다가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외국에서 수입 하나? 예술이나 인문은 그럴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특히 순수예술은 취업률이 지표로 계산되기 어려운 특성상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교육부에 “예술활동지수(가칭)”란 걸 제안했다. 예를 들어 예술대학 학과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어느 분야로

얼마나 나갈지 계획을 세우고 조사기관은 그걸 오랜 기간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무용학과 같은데 배우나 무용수로 진출하는 비율, 연출이나 기획 등 스태프로 진출하는 비율, 문화예술교육 등 교육자 몇 명, 일반 직장 몇 명하는 식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그중 한 쪽을 특성화할 수도 있다. 그 설계에 근접한다면 교육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단 취업률 기준 중 창작활동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정도로 그쳤다.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얘기하겠다. 당장의 칼날을 피하려면 교육부 지표에 맞춰 이리저리 잘라내면 되겠지만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교육부는 이 길에 평소 풀지 않았던 일까지 모두 해결하려 하고, 또 대학은 이 길에 풀지 않았던 학과들 모두 정리하려고 하는 식이다. 정부에서는 각각의 대학이 생명체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대학은 각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생명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약하다고 그냥 죽이는 일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것처럼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최고 목적인다고 생각한다. 이걸로 대담을 대신하겠다.

너무 무거운 강의 교재



▲ 본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내 서점의 모습.

한성이는 학기 초를 맞이하여 수업 교재를 샀다. 공장 서점으로 가서 사야 할 책 4권을 구매하는데 가격은 무려 10만 원. 눈물을 흘리며 책을 들고 집에 가는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지. 이에 한성대신문은 본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구매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수업교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질문(중복답변)에 ‘서점에서 구매’(96%), ‘동기나 선배에게 물려받음’(21%), 복사·제본(14%) 순으로 답변을 기록했다. ‘2015년 1학기에 구매한 총 권수’라는 질문에는 ‘4권’(27.5%), ‘5권’(20.5%), ‘3권’(20%) 순으로 답했다. ‘2015년 1학기에 지불한 총 수업교재비’라는 질문에는 ‘7만~12만’(42.5%), ‘3만~7만’(37%), ‘12만~18만(9.5%) 원이라고 응답했다. 위 조사에 의하면 한 학기에 90%이상의 학생들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며,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교재비는 9만5천원이다.

평균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약 32권의 책을 구매하며, 약 76만원의 교재비를 지불한다.

너무나도 무거운 강의교재, 이러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고서적장터가 열린 성균관대 자연캠퍼스

새학기 새 책을 구매하는 대신 중고책을 선택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중고책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교재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대학 자체적으로 중고책 장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총학생회 주최로 중고교재 판매를 실시했다. ‘신입생들을 위한 중고책 대리판매’를 주제로 개최된 이 행사는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진행되었다.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판매할 원하는 책을 한 곳에 모아 평균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단, 판매자의 의사와 책의 개정여부에 따라 할인이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중고서적장터를 통해 약 200권의 책이 판매되었고 약 2,744,5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수익은 책을 판매한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정영문(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은 “1시간도 채 안돼 모든 교재가 팔렸다”며 “중고서적장터를 통해 재학생은 약간의 용돈을 벌 수 있고 신입생은 교재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교내에 중고서적장터가 개최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하여 전민우(학생지원팀) 과장은 당장 개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중고서적장터를 기획한다면 언제든지 예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기부의 또 다른 이름 빅북운동

교재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가까이에서 지켜 본 조영복(부산대 경영학과)교수는 2010년부터 지식과



▲ 성균관대 자연캠퍼스에서 개최된 '중고서적장터'의 모습.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

빅북운동이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수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여 무료로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때 학생은 언제든지 파일형식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부담감없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 빅북운동은 많은 참여를 이끌고 있다. 지난 1971년 미국의 마이클 히트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모아 필요한 이들과 공유하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금까지 철학과 역사 등 인문 사회 분야에 4만 6천여 권을 전자문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빅북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통계학 개론이나 경영학원론 등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교재 저자인 교수들이 저작권을 기부하는 것이다. 조영복 교수가 시작한 ‘빅북운동’으로 전국의 교수 50여 명이 만든 무료 교재 10권은 학생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영복 교수는 “그동안 대학교육은 많이 변했지만 30년 동안 아직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이다”며 “교수들의 저작권 기부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다”고 말했다.

빅북운동과 관련하여 고창수(한국어문학부) 교수는 “빅북운동은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출판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미 출판한 책의 저작권을 포기하게 되면 출판사의 경우 책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교 한성대에도 학생들의 교재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유진 기자 lyj32108@hansung.ac.kr

정치로 번다

600원짜리 화장터

녹아내린 전화박스와 사물함, 매년으로 시커멓게 그을린 벽, 5분밖엔 지나지 않았지만 속을 답답하게 하던 독한 매연가스, 그리고 바닥에 유가족들, 벽과 바닥을 온통 덮어 놓았던 말죽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 그것은 2003년 2월 18일,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보았던 중앙로역의 모습이였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참사 현장이 TV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가보아겠다는 생각에 대구 중앙로역을 찾아갔다. 중앙로역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랑하는 이를 보내버린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로 빼곡히 덮여있었다.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던 중 갑자기 벽 한가운데서 툭 튀어나온 듯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던 두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다음 아닌 “600원짜리 화장터”라는 단어였다. (당시 지하철 표 가격이 600원이었다.) “600원짜리 화장터~~~”

그 두 단어가 던져주는 거대한 중앙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른 한편에서 과격해 보이는 자못 성격이 틀려 보이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엔 바로 “대구 시민 두 번 죽이는 조해령 시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런 내용의 글들로 꽂 채워져 있었다.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시장과 시민들의 손발이 가장 맞아야 할 때인데 왜 이런 대자보가 붙었는지 라는 의문들이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은 중앙로 역 주변을 둘러 본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곧 풀리게 되었다. 그것은 유가족들이 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화재 현장을 물청소하고 유해작업을 마무리했던 대구 당국의 무성함을 넘어선 비인간적인 처사 때문이었다. 더욱이 시

당국에 의한 대대적인 물청소의 원인이 바로 고위 공직자가 대구에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서였다고 한다. 아직 누가 죽었는지, 실종된 가족의 시구도 찾지 못 했는데, 고위 공직자가 방문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아버지의 재일수도 있는 그 재들을, 뼈들을 물로 다 치웠다고 한다.

“대구 시민 두 번 죽이는 조해령 시장 물러나라”는 붉은 글씨로 쓰여진 과격한 대자보의 사연에 대해서 알고 나니, 중앙로 역 여기저기가 다르게 보였다. 그 전까지는 “떨어 사랑해-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해!” “보고싶은 엄마! 부디 편하게 쉬세요!”라는 심금을 울리는 사연만 보았다면, 이제는 중앙로 역 여기저기에 전시되어 있는 중앙로 역 물청소 현장 사진과 이후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쓰레기 터미에서 발견된 사체들과 유골, 유품들의 사진들도 눈에 들어왔다.

만약 그 지하철에 조해령 시장의 부인이나 딸이 타고 있었다면 아마 모든 경찰과 병력을 동원해서 유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상처 입은 유족들, 시민들을 치유해도 모자랄 지도자와 그가 섬겨야 할 시민들간의 ‘소통의 부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과 대구 시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의 상처를 던진 것은 아닐까.

공공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책을 통해서가 아닌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에서 만난 ‘600원짜리 화장터’라는 그 문구를 보고 나서였던 것 같다. 즉, 책 안에 갇혀 관념적으로 살고 있던 내가 600원짜리 화장터라는 문구를 통해 사회문제와 접촉하게 된 것이다.

정치발전소에서 활동하다 보면,

대학생들로부터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때면 이 질문을 만날 때마다 답하기 어렵다는 걸 느낀다. 왜냐하면 나 역시 나를 깨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더 나아가 정치참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의 답으로 대신하곤 한다.

노예제가 폐지된 것 정치적 문제다.

우리가 투표할 수 있게 된 것 정치적 문제다.

여성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 정치적 문제다.

아이들이 부모의 재산에 상관없이 맘 편히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정치적 문제다.

족방 노인들이 따뜻한 밥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게 되는 것 정치적 문제다.

등특급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 이상씩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치적 문제다.

이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는 너무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밤을 새도, 이 세상의 종이를 다 갖다 써도 부족할 것이다.

600원짜리 화장터, 시장의 화려한 연역 그리고 유가족과 시장을 대표한 엘리트 지도자들, 이들 사이에 존재하던 알 수 없는 유리벽! 600원짜리 화장터가 어디 대구 중앙로역 뿐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600원짜리 화장터는 곳곳에 넘쳐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중앙로역에서 우리들은 어디에서 있는가? 자기 아버지의 재를 찾지 못해 울부짖는 이들의 편에 서 있는가? 고위 공직자를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화재현장을 물청소 해 버리는 사람 편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의외로 답은 늘 간단하다.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

삼선동에서

수업시간에 맞춰 바쁘게 등교하다보면 문득 잊고 사는 것이 있다. 바로 학교생활을 하는 이곳이 한성구 한성동이 아닌 성북구 삼선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성대가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함께 나누는 착한디자인

제품디자인학과 20명의 학생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저가 디자인 브랜드’를 개발해 주목 받았다. 지난해 9월 30일에는 수강생 11명이 성북구 청장(청장 김영배)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2014년도부터 제품디자인학과는 실무중심의 강화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문찬(제품디자인학과전공) 교수의 창의적 산학 스튜디오 강의이다. 약 20여명의 수강생이 조를 이뤄 한 학기 동안 자신만의 저가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2014년도 1학기에는 삼선동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5명에게 가구를 기획·제작하여 기증했다. 노인은 젊은 디자이너가 소통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이며,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크고 디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에 가장 어려운 고객층이라고 판단되어 강의가 진행되었다.

2014년도 2학기에는 책상과 의자 등을 만들어 학교 인근의 공부방에 기증했다. 친환경적 저가 브랜드를 개발

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적극 활용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란 버려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재 디자인 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학교시설지원팀의 도움으로 학교 폐가구를 무상 기증받아 제조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1학기, 2학기 모두 ‘창의적 산학 스튜디오’ 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사용자 가장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꼼꼼히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세가 필수라고 말했다. 홀몸노인을 위한 디자인의 경우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유상금(제품 4) 학생은 “손녀같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기 미안하셨는지 할머니가 필요하신 것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며 “할머니께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할머니의 일상을 열심히 관찰했다”고 말했다.

문찬(제품디자인전공)교수는 “대학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고민하다가 수업을 개설하

게 됐다”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만들어 가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에는 과제의 범위를 넓혀 삼선동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골목길이 많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길

을 헤매기 쉬운 삼선동의 특성을 반영해 동네 곳곳에 50개의 수작업 안 내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오르막길에 심한 곳에는 옥의 벤치를 제작하고 설치할 예정이다.

노유진 기자 lyj32108@hansung.co.kr



▲ 인근공부방에 기증한 제품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작품.



학술정보관 연속간행물실 오픈

■ 장소 : 학술정보관 연속간행물실(5층)

2015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술정보관에 위치한 기존 일반열람실(자유열람실)을 리모델링하여 자유롭게 토의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연속간행물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교수, 학생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교단에서

고창수 교수
(한국어문학부)

알고 있듯 대학의 존재 이유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지식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대학을 상아탑(ivory tower)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솔로몬 왕이 최고의 미인에게 바친 찬사가 바로 상아탑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진정한 상아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지성을 대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지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회 체제를 통찰할 수 있는 인류의 지적 성취를 의미한다.

인류가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연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잉여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선진국이 주변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비하한 것은 자신들의 지성이 분명한 비교우위에 있었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러한 지성을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가 창출한 잉여가치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 이로 인해 거대한 사회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정치나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과 인간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야만의 대학

오늘날에는 인문학, 사회학, 이공학, 예술학으로 분화되었다.

대학은 이러한 지성을 고도로 숙련시킴으로써 해당 사회를 좀 더 나은 체제로 발전시키는 사회의 중추기관인 셈이다. 이로써 인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의 욕망을 안전하게 그러면서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예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짐이 있다면 그 사회는 기형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일견 어느 한 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붕괴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역사가 그러하였다. 인간의 권리가 신장되는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고 지배층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지식은 결국 그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 놓게 되는 것이다. 기술과 돈만을 우선시하는 지식은 그 사회를 보호할 수 없으며, 대학이 이와 같은 천박한 지성에 머무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야만의 대학이 아닐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학이 당연히 묵수해야 할

지성의 계보와 전통을 단순히 취업과 기술과 맞바꾸려는 경향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두려워할 고도의 지성을 연마하기 위해 어떤 학문들은 불가피하게 퇴출되어야 하고 어떤 학문은 탄력을 받아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에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에 속고, 도래하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면서 내외의 격론을 융합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탐구, 세계의 시민이 되기 위한 세계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을 수용할 수 없는 대학은 이미 대학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창의력이란 과거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인간이면 내재하고 있는 욕망의 현실적 대안에서 구할 수 있는 지성의 연마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특정한 직업적 능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적 기능들을 수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진정한 사회 개혁 주체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의 계보를 난도질하는 야만의 얼굴을 벗고 균형 잡힌 지성의 전당, 상아탑의 본면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사 설 ·

김영란法, 공정사회로 가는 진입로 되길

상의 갑(甲)과 을(乙)은 계약당사자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일 뿐이므로 원래 갑을관계는 수평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갑을관계가 왜 주종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을까? 그것은 갑이 자신의 영향력을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갑은 자신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 이익을 보는 율로부터 대가를 받지 마련이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을은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관행이 만연할수록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도 크기 마련이다. 갑의 영향력은 통상 직위로부터 나오고, 많은 정보와 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직위일수록 그 영향력도 크게 된다. 공직은 그러한 대표적 직위 중 하나이다. 2015년 3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발효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기관의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임직원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

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깨끗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처벌수위가 낮아져 그 효과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이 법의 한 축을 형성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결국은 완전히 삭제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법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물론 법의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미비점 때문에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은 발의된 지 3년 동안의 산고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률(92.3%)로 통과시켰고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희생은 대가로 지불하면서 가까스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법이다. 오랜 적폐를 시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피곤한 일이며, 이런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기관의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임직원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

순수예술을 키워나가야 할 대학에서 오히려...



기자수첩

임태미 기자
(시각영상 2)

이번 문화면 기사의 취재는 지난 달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청년예술가 일자리 조사연구 심포지엄'에 다녀오면서 시작됐다. 예술전공 졸업생들의 취·창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진출 가능한 일자리 분야의 현황조사, 이들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연구하여 이를 발표하는 행사였다. 청년 예술가에 대해 다루는 한편 '순수예술'학과의 위기에 대한 취재를 함께 병행했다. 이번 문화면 취재는 일찍 시작했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했다. 본교에서 학과통·폐합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술전공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해 다루는 것이 시가상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된 문화면에는 예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대학들의 자구책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

청년예술가 일자리 조사연구에서는 예술학과의 커리큘럼이 전공 창작실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취·창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학은 학과통·폐합을 제시했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취업이 잘되는 융복합학과로 신설한다는 것은 심치이 긍정적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많은 순수예술학과 학생들이 통폐합 반대 시위를 하고, 순수예술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3년도 청주대 회화학과 1학년이 된 학생은 입학하자마자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과가 사라졌다. 단지 미술이 좋다는 이유로 3년간 입시미술을 하고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회화학과에 입학한 학생이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겠냐"는 어른들의 말도 귀

에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들어간 학과가 하루아침에 폐교된다는 말에 학생들이 모였다. 학생들의 시위 끝에 남은 자리에는 '비주얼아트학과'가 생겼다. 선배들이 그동안 배웠던 한국화 전공 수업은 비주얼아트학과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이 되었다.

예술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청년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예술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술 활동을 하며 살기를 바란다. 순수예술을 꿈꾸는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 없이 진행되는 학과통·폐합은 결국 순수예술의 의미를 도외시키는 일이다. 학과의 융·복합이 단순히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삼 학 송 ·

나우 유 씨 미(Now you see me)

"Now you see me" 마술사들이 마술쇼에서 자기 자신이나 물건을 숨길 때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다. "자, 제가 보이시죠?" 그 다음 말은 무엇일까? 아마 "자, 이제 사라졌습니다" 일 것이다. 사라진 것은 마술사 자신일 수도 마술사가 들고 있는 카드 혹은 비둘기 등 마술쇼의 구성원일 것이다. 마술사는 관객을 속이기 위해 미스디렉션(Misdirection)을 유도한다. 미스디렉션은 말 그대로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마술사가 마술 트릭을 쓰기 위해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하거나 다른 곳에 주목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일종의 눈속임인 것이다. 마술사의 미스디렉션에 응한 관객은 마술사의 트릭을 눈치 채지 못하고 그의 멋진 마술 솜씨에 놀라게 된다. 분명 마술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자 안에 있던 비둘기가 사라지고, 직접 낚서를 한 카드가 새 것이 되고, 상자안의 토끼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게 고개가 끄덕여 진다. 그래 맞아. 학교는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취업 잘되면 좋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는 마술을 부려놓았다. 학생들이 눈치 채지 못한 사이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원래 달지 않았던 성적 세칙을 더욱 짜게 바꿔 놓았고, 피해질 수도 있었던 교육부의 구조조정 감사를 정통으로 맞았는지 정원도 감축했다.

"Now you see me" 학교는 결과로서 보여준다. 자 봐.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정책이 어쩔 수 없었어', '학생들이 이해해줘야지' 본질은 왜곡되고 흐려진다. 또 다른 문제로 기존의 문제를 덮으니 어떤 것이 본질적·고질적·근본적 원인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마술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마술사의 트릭이 뛰어나서일까, 아니면 관객이 마술사의 트릭을 알아챌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서일까? 그동안 수업이 학교의 마술에 속아왔다. 미스디렉션임을 알면서 속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 편한지도 모르겠다.

"자, 제가 보이시죠?" 그 다음 말은 뭘까? 아마 "자, 이제 사라졌습니다"일 것이다.

(한재원 편집국장)

모두가 다빈치가 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낙산에 올라

박현신
(한국어문 3)

"저희 과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대학에 와서 적성을 찾았는데..."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밥을 먹던 중, 뉴스에 나온 한 여학생의 말이 밥 대신 내 목에 걸린다. 생선 가시처럼 목에 걸린 그 말이 영 점잖게서, 식사를 멈추고 '중앙대 학과제 폐지'란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한 여학생의 말이 나를 이렇게 움직인 건, 대학에 와서 적성을 찾았다는 그 말이 내 경험과 유사해 서였으리라.

초, 중, 고 12년 동안, '내가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특히 그 생각은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수학에 투자해도, 여전히 수학을 못 할 때 더 심해졌다. 그랬던 내가 처음으로, '나도 잘하는 게 있었구나.' 하고 느낀 것이, 대학교 1학년 '문학의 이해' 발표시간 이었다. 늘 선생님이 해주시는 시 해석을 받아 적기만 하다가, 조원들과 토론하며 시를 주체적으로 해석했던 그 과정이 참 신선했다. 특히 같은 텍스트를 읽고 다른 생각을 가져도, 모두의 생각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전율이 있었다. 그러한 과정은 언어영역 모의고사를 풀 때, 내 생각은 3

번이 답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5번이기 때문에, 빨간 줄을 그어야 했던 그 순간 과정들과는 분명 달랐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끔 학교공부가 버겁고 힘들어도, 순간순간이 재밌었기에, 그동안 학교에서 보낸 3년 반의 시간을, 감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중앙대는 학과제 개편안을 실시함에 앞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빈치형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3학기 동안 전공탐색의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주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일찍 보면, 학생들의 선택 기회가 넓어진 듯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 첫째는 '정말로, 학생들의 선택 기회가 넓어졌다.' 이다. 인기학과인 경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때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게 된다. 두 번째는 대학의 존재 이유가 오직 취업이었나' 하는 것이다. 대학은 말 그대로 큰 배움을 얻는 곳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배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 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게 될 인류의 행복

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런 점에서, 취업률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에 따라 과의 존폐가 갈리고 당장에만 유용한 학문만 배운다면, 과연 그것이 미래사회에도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마찬가지로 대학은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취업을 잘 할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행복할까?'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대학이 라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

모두가 다빈치가 되는 것만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개인마다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다빈치 뿐 아니라, 허버마스, 하이젠베르크, 휘트만, 박경리, 이종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의 필요에 이바지하는 행복한 사회였으면 한다. 앞으로의 대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든, 앞서 제시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다른 어떤 대학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독자칼럼

이수빈
(무역 2)

개강하고 방학동안 못 보던 친구들과 밥도 먹고 근황을 물어보던 것이 어찌만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나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학교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총학생회는 공석입니다.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어진 후보자는 학우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인데 같은 후보로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푼 시험지를 다시 풀게 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

무런 홍보가 부족해 잘못이 크다는 의견 등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이 부족한 이유 중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세기간에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왔다가 하면서 총학생회 투표홍보용지를 하루에 기본 3장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알림판이나 공약이 붙어있었다거나 강선을 하는 것은 본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학생들은 투표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러한 일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우들이 투표자가 맘에 들지 않아서 투표를 안했다기보다는 귀찮아서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늦어서 강의 들러서 들어가 봐야 하는데 "투표하셨어요?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하며 붙잡으

니 나름대로 짜증이 나서 "아, 아까 투표했어 요"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 달려가 버리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조차 총학생회의 공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공석이기 때문에 사물함 신청과 사용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불편함과 궁금증이 많다고 대표로 학교에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투덜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이기에 학생들이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줬더라면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낙산만평

한지선(매디 2)



◆ 학술 기획연재

부재와 억압

〈부재와 억압의 역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에 초점을 맞춘 학술 기획연재다. 역사 속에서 발생한 부재와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부재와 억압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연재 기획>

- ①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지의 부재
- ② 남녀는 과연 천리 앞에 평등 했나
- ③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러진 교편
- ④ 종교의 억압 -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 ⑤ 묶여버린 펜, 빼앗긴 권리, 언론의 억압

② 남녀는 과연 천리 앞에 평등했나

역사 속 여성의 지위와 평등에 대해서



살아온 것만은 아니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는 긴 시간동안 우리의 삶과 사상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남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어느 시대에 나타난 것일까?

여성, 신라의 왕위에 오르다

역사의 뒤페이지를 열어보면 남자인 왕들만 존재했던 조선 시대와는 달리 신라 시대에는 여성리대인 '여왕'이 있었다. 신라 26대 진평왕의 승하 후 왕이 된 이는 여성인 선덕여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을 이어 28대 진덕여왕, 51대 진성여왕이 왕위에 올랐다. 여성을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던 신라의 여성정치문화는 신라의 남녀 평등적인 문화에 기인한다.

그 배경으로는 부계계승과 모계계승을 들 수 있다. 부계계승은 부권사회에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대를 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라의 부계상속제는 표면적 제도였고 실질적 사회제도는 모계상속제이다. 이는 모계혈통으로 인해 신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정치문화는 남녀의 자유로운 성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문희와 김춘추 설화는 통상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와 김춘추는 인연을 계기로 서로 정이 통해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 김유신은 노한 척 문희를 벌하기 위해 장작에 불을 붙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춘추는 김유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훗날 문희와 서로 혼례를 치렀다.

여성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된 고려시대

고려시대 역시 신라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풍습으로 자유혼과 근친혼이 성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가족계승 및 외손봉사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처(棄妻·남편이 아내를 버리던 일)당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여성들의 재혼에 있어 이는 어떠한 결점도 되

지 않았다.

고려사 열전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재가 시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재산을 갖고 재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가 후 남편의 신분이 더 높다면 신분상승까지 가능했다. 순비 허씨는 혼인을 두 번 했다. 그녀는 왕현에게 시집가서 자녀를 얻었지만 왕현이 죽으면서 춘선왕과 재혼하여 춘선왕은 즉위 후 허씨를 순비로 책봉했다.

또한 고려시대 여성들은 혼인의 여부를 막론하고 재산상속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성별보다는 연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조선의 성리학파 가부장제

고려말에는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던 불교의 세속화로 인해 사회는 풍기문란 등으로 병들고 여성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까지는 고려시대의 제도와 풍습이 유지되었지만 유교가 도입되며 성리학적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조선 초기의 남녀의 차이는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의 차이에 불과하였다. 유교적인, 특히 성리학적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남자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남자에 비하여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던 시기는 임진왜란과 양 호란을 거치는 공간에서 국가의 질서를 성리학으로 무장하면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화기의 여성교육론

내외법에 얽매어서 문 밖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조선초 여인들에게 개화된 세계의 학교교육은 그 자체로 커다란 변화였다.

개화기 시대 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의지는 여성교육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나타났다. 개화국으로 가기 위해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교육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여성 자신보다 어머니 역할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교사회의 여성교육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개화기의 여성교육은 현모양처를 위한 교육이다. 조선사회가 여자에게 여사서나 부덕을 가르쳤다면 개화기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것일 뿐 여성을 한 인간으로 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에게 부국강병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은 어머니로서 국민인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었다.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력 고취

정부의 지속적인 남녀평등원리의 강조와 확산으로 인해 여성의 진출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여성의 권익이 신장될수록 '여성'만을 강조하는 여러 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의 비판어문에 직면했다.

여성이 불행한 사회에서는 남성이 행복할 수 없고 남성이 불행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행복할 수 없다. 남녀의 평등은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 구현되어야함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선 역사를 바탕으로 양성모두 서로 노력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최혜정 기자 hipo96@hansung.ac.kr



메마른 뇌에게 물을 뿌려라!



과제, 시험공부, 텃밭 토론 등으로 인해 3월 밤을 새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상황.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에도 불구하고 잔뜩 열을 받아 굳어버린 두뇌는 과부하 상태이다. 이렇듯 두뇌회전이 느려져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도움을 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영국 이스트런던 대학의 연구자들은 갈증이 해소되면 뇌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3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두 번의 지능 검사 실험을 했다. 첫 번째는 아침식사 시 시리얼 바를 먹고 난 후였고 두 번째는 시리얼 바에 물을 붓고 먹

은 뒤 지능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원들이 갈증을 느끼는지를 물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아침 식사로 물을 먹지 않아도 지능 검사에서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대답한 사람은 물을 마신 다음 응답 속도가 14% 향상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물이 충분히 없으면 뇌가 위축되고 사고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연구자가 물을 마시게 한 후 소량의 물을 여러 겹 입을 사람과 반바지나 T셔츠처럼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각각 1시간 30분 동안 사

이러기를 하고 땀을 흘리게 한 뒤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여러 겹 입은 사람은 900g의 땀을 흘리고 뇌 조직이 위축되어 있었다. 90분 동안 땀을 흘리면 한살 나이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가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물을 한 두 잔 마시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물을 마시면 뇌뿐만 아니라 피부도 한층 밝아지며 탄력이 살아난다고 한다. 또한, 체중도 감량되고 항상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커피와 음료수 대신 물을 먹는 습관을 가져 뇌를 항상 촉촉하게 가꿔주도록 하자.

오혜진 기자 dhgwls0424@hansung.ac.kr

美生 여걸들의 이야기

남편대신 아들을 선택한 여인, 혜경궁 홍씨



혜경궁 홍씨(1735-1815)는 사도 세자의 부인이며, 정조의 생모이다. 비운의 여성으로, 혹은 정조를 낳은 훌륭한 어머니로 묘사되던 혜경궁 홍씨는 최근에 들어와 권력 지향적인 냉혹한 여성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한 상반된 이미지가 나오게 된 것은 남편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그녀가 방조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노년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입궐한 여인

혜경궁 홍씨(이하 홍씨)는 1735년 6월 18일 서울 거평동(오늘날 서대문 밖 평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흥분한이다. 장래 그녀의 남편이 된 사도세자와 홍씨는 1735년생으로 동갑내기였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혼인식은 1744년(영조 20) 1월 11일에 있었다. 홍씨는 세자를 따라 창경궁으로 갔다. 이때 세자나 홍씨 둘 다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들이었다.

여러번서도 감정 기복이 심했던 영조는 특정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심한 아버지였고, 특히 사랑하던 딸 화평옹주가 죽은 뒤로는 의지해야 할 아들인 세자를 오히려

멀리했다.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세자빈 홍씨는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1755년(영조 31)에 친정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세자 편이었던 대비 김씨와 왕비 서씨마저도 승하하였다. 이제 세자 곁에는 양측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영조는 급기야 공공연히 세자에게 면박을 주었고, 세자의 유회증은 깊어 갔다. 영조와의 유회로 세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가 마침내 내시 김한채를 밀고자로 의심하여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리는 일이 생겼다. 마침내 세자의 생모 선희공은 세자의 살기가 부친마저 위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선희공은 영조에게 아들 사도세자의 행태를 모두 밝혔다. 선희공은 아들을 버렸고, 세자빈 홍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버렸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불우한 삶을 마감했다.

정조와 혜경궁으로서의 삶

영조는 죽은 세자를 폐사시켰다. 폐사이란 세자를 폐위하여 평민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세자빈 홍씨도 더 이상 세자빈이 아

니었다. 어느덧 28살의 나이가 된 홍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러나 얼마 안가 사도세자가 복위됨에 따라 다시 세자빈 신분을 되찾았고 궁궐로 들어갔다. 이제 홍씨에게 남은 희망은 아들을 잘 키워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1776년 3월 마침내 혜빈 홍씨의 아들이자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생모인 혜빈 홍씨를 혜경궁(惠慶宮)으로 높이고 지성으로 효도를 다했다. 혜경궁이 환궁이 되던 해에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으로 행차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32년 만에 남편의 무덤인 현릉원(顯陵園)에 간 것이다. 실로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얻은 보상이었다. 혜경궁 홍씨는 정조 사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1815년(순조 15) 12월 15일에 81세의 나이로 창경궁에서 사연 많은 삶을 돌아두고 세상을 떠났다.

정성희

실학박물관 책임학예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센터는 2월 25일 청년예술가 일자리 조사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센터는 '예컨대 쇼케이스'를 3월 18일 KT&G 상상마당에서 개최했다.

예술가는 왜 항상 배고파야 하나!

졸업한 지 3년 이내의 청년예술가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요즘,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든가, '청년은 사치'라든가 하는 말을 더 아파들고 있다. '예술가는 원래 배고픈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탓에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일자리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 청년 예술가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면 경력도 없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예술 활동을 하기 어렵다", "신진 아티스트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최근 신진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말 파릇파릇한 젊은 청년예술가들에게 아직 먼 얘기이다. 이렇다 보니 청년예술가들이 졸업 후 3년 이내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다. 예술전공 학생들이 졸업 이후 삶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는 예술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2월 대학 졸업시즌에 맞춰 예술전공 졸업생의 실태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청년예술가 졸업 후 3년 이내 가장 힘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센터는 지난달 25일 종로구 아름지기 사옥에서 '청년예술가 일자리 조사연구 심포지엄'을 선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와 실태, 각종 제도 및 정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한예중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센터의 김선애(한예중 연극인 교수) 센터장은 "실용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해 예술인 지원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며, 각종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력 없는 청년예술가를 위한 창작·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융합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마다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진행됐다.

연구의 대상은 사회활동의 중요한 시작점에서 있는 졸업 후 3년 이내의 예술전공생으로 설정했다. 졸업 후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공모전, 기금사업에도 지원해 보지만 경력이 없는 졸업생들은 기성작가를 제치기 어렵다. 결국, 금전적인 문제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취업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졸업 후 3년 이내 청년예술가들은 취업하게 되면 예술 활동에 대한 미련으로, 작품 활동을 택한 경우에는 생활고와 작품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혹은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월급이 100만 원 수준을 밑도는 졸업생들이 많아 고용의 질이 높지 않았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예술가의 비정규직을 당연시하며 '열정페이'를 부추기는 분위기도 젊은 예술가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미술 분야의 조인수(한예중 미술원 교수) 연구원은 "많은 학생이 졸업 후 예술가로 살기를 꿈꾸지만, 실제로 전공을 살려 미술가라는 직업을 가진 학생은 13%에 불과했다"며 졸업장만 있는 청년예술가를 환영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예술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가들

국내 예술시장은 기성작가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신진아티스트 지원사업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이미 어느 정도 경력과 명성을 쌓은 경우에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예술가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문화 지원정책에서 청년예술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서 각종 기금, 지원제도, 공모전 등에 대한 졸업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 예술가에 대한 할당제(쿼터제) 및 가산점 부여를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한예중은 청년예술가 일자리 조사연구를 토대로 지원 사업의 모범으로 '예컨대 쇼케이스'를 3월 18일 KT&G 상상마당에서 개최했다. '예컨대 쇼케이스'는 청년예술가의 시장진출과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예컨대(예술가-컨설턴트-대화) 프로젝트'로, 예술전공 재·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창업 지원 사업이다.

예술계통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오세근(연극무용과) 교수는 "전 국민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일자리도 늘리면서 국가의 문화 융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예술감사 사업의 규모는 초·중·고 학생의 4분의 1 정도가 약 1주일에 1시간 정도 예술을 경험하는 수준이다. 초·중·고 학생 모두 최소한 1주일 2시간 교육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예술가들이 교육가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지역연계를 통한 예술과 사회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예술가의 참여는 미비해 앞으로 할 당체,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기회를 더 주어야 할 것이다.

취업률이란 것대로 예술을 평가할 수 없다.

최근 순수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술대학 학과들이 통·폐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예중 예술전공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안정한 일자리 형태에 불구하고 순수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프리랜서'가 될 때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정규·사무직의 경우 직업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 한 순수예술학과 학생은 "피카소, 고흐도 취업하지 않았다. 이종섭은 4대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임태미 기자 team14@hansung.ac.kr

BACKSTAGE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배우, 극본, 연출가들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연극 <수상한 흥신소2>

사연을 가진 영혼들은 모두 이리로 오라!

Q. 반갑습니다. 먼저, 공연과 배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영 (이하 지): <수상한 흥신소 2탄>은 영혼을 볼 수 있는 청년 오상우의 현제방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멀티걸 역할을 맡은 윤지영입니다.
태영 (이하 태): 멀티맨 역할의 이태영입니다.
연후 (이하 연): 반갑습니다. '오상우' 역을 맡은 최연후입니다.
용인 (이하 용): 어릴 적 사고로 세상과 소통을 단절한 채 가족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스물 여섯의 고시생 '지연' 역을 맡은 권용인입니다.
Q. 연극 <수상한 흥신소 2탄>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 1탄이 각자의 사연이 담긴 '죽은 사람들' 이야기라면 2탄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산 사람들에 포커스를 둔 작품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소중함이 교훈이라고 할까요?
지: 지연이의 버킷리스트를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멀티맨과 멀티걸이 빠르게 다른 역할로 변환해가며 연기를 하는 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Q. 영혼을 위한 흥신소인데, 귀신보다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연: 산 자와 죽은 자가 나누는 극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혼재되어 살고 있지 않아요? 영혼들 역시 영혼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있었지요. '사연'을 가진 영혼과 그 사연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사람의 등장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영혼들의 사연들은 이승에서의 남은 업보이기 때문이죠.
Q. 여러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태: 워낙 다(多)역을 맡다 보니 이 역할 저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발... (웃음) 농담이구요. 각 인물마다 그 역할에 맞는 호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Q.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이 연극을 추천하는 이유?
용: 모멘트 코미디물이 줄 수 있는 '달달함'과 함께 큰 감동과 웃음을 주며 이 봄에 따뜻한 감성을 가져다 줄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연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임태미 기자 team14@hansung.ac.kr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 관심 단담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Q1. 사람 사 티투이스트 테오가 뉴욕을 다녀온 뒤 발간한 여행화첩의 제목은?
Q2. 학술 신라의 왕위에 오른 제 27대 여왕은?

· 지난해 당첨자 ·

- 499호 연극터널 당첨자
- 이유빈
- 박유경
- 서현수
- 김미현
- 백승린(일타)

500호 보물 당첨자

- 김다인(지식정보)
- 이수연(제품)
- 조은형(무역)

· 추천방법 ·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연극 <수상한 흥신소2>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방문하여 주세요.

익스트림플레이 ExtremePLAY

광대 폭발! 감동 폭발!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코미디!

그 두번째 이야기!

NO.1 연극

수상한 흥신소2

찰싹 달라붙어 웃겨드립니다!!

익스트림씨어터3관 OPENRUN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제작 익스트림플레이/작/연출 임길호 공연문의 | 익스트림플레이 070-829-7420

Gamesave

성공한 게임들은 대부분 대학시절에 친구들과 만든 게임이 많다는 사실! 'Gamesave'는 게임, 그리고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칼럼이다.

대학교 전산실에서 만난, 블리자드 3인방

“돈 벌려는 생각보다는, 함께 게임을 만든다는 자체가 좋았죠.”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오브워 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는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 중 하나다. 블리자드는 '마이크 모하임', '앨런 애덤스', '프랭크 피어스', 세 명의 젊은이가 만들었다. 이들 3인방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동문이다. 이들은 유언 한 기회쯤 통해 만났다. 대학교 전산실에서 마이크 모하임과 앨런 애덤스는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게 됐다. 애덤스가 PC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장난기가 발동한 마이크 모하임이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앨런 애덤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뀐 비밀번호를 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둘은 똑같은 비밀번호 'joe'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친구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까워진 이유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것.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학교 전산실은 젊은 게임 크리에이터들의 산실이었다. 둘은 같은 대학

출신인 프랭크 피어스와 의기투합해 '실리콘&사립스'라는 게임사를 차렸다. 당시 미국 게임시장은 급변하고 있었다. 오락실이 사라지고, 가정용 게임기 시대가 왔다. 3인방은 게임이 가져올 엄청난 가능성에 주목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게임에 열광할 날을 꿈꾸었다. 하지만 창업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당장 회사를 운영할 돈이 없었다. 마이크 모하임은 할머니에게 15,000달러(한화 1,700만 원)를 빌려 개발자금으로 썼다. 1년 만에 액션게

임 덕구 게임어바웃 편집장 gabriel@gameabout.com